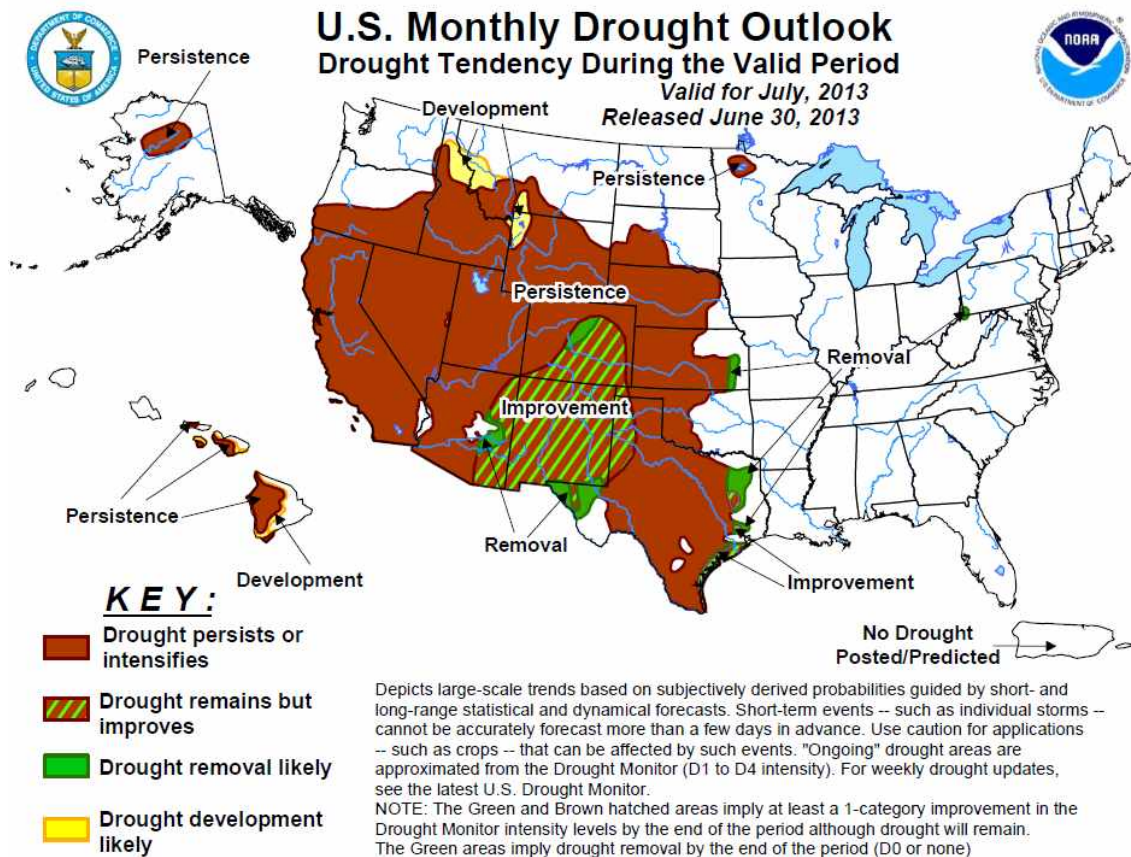




※ 7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0, No. 27)

□ 미국 기후 현황(6/23~6/29)



중서부 위쪽지역 기후가 건조해져 저지대에 발생했던 홍수의 영향이 완화되었으며 밭이 마르기 시작했다. 한편 콘벨트 중부 및 동부에서부터 북동부에 이르는 지역은 호우(주간 총강수량 2~4인치 이상)가 지속되었다. 남동부에도 국지적 호우가 내렸다. 중서부 및 동부에 내린 비로 인해 적색연질밀(SRW)의 수확이 지연되었다. 한편 대평원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대평원 북부에 늦과중한 여름작물들은 온난한 기후로 인해 생육발달이 잘 되었지만 고원 중부 및 남부는 작물이 이미 가뭄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높은 기온이 작황에 악영향을 주었다. 적색연질밀(SRW)은 고온건조한 기후가 성숙 및 수확에 유리했다. 미국 전역의 기온이 평년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었으며, 로키산맥 및 고원 남부지역

은 열파가 가장 심하여 주간기온이 평년보다 화씨 10도까지 높은 수준이었다. 서부 지역의 열파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서부지역은 주말에 기후가 선선해졌다. 남서부지역에서는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발생한 마른번개로 인해 산불이 여러 건 발생했다. 특히 애리조나 중서부의 Yarnell Hill에서는 6월 30일 심각한 산불피해가 발생했다(소방수 19명 사망).

□ 미국 작물별 재배면적 요약

옥수수: 2013년 전체 재배면적은 9,740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1936년(1억 200만 에이커) 이후 최대수준이다. 수확면적은 8,910만 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대비 2% 증가한 수준이다.

대두: 2013년 전체 재배면적은 7,770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1% 증가했으며 기록적으로 넓은 수준이다. 특히 뉴욕,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의 재배면적이 기록적으로 넓은 수준이다. 수확면적은 7,690만 에이커로 2012년 대비 1% 증가하고 기록적으로 넓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밀: 2013년 전체 재배면적은 5,650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1% 증가했다. 겨울밀 재배면적은 4,270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3% 증가하고 이전 추정치에 비해 2% 증가한 수준이다. 겨울밀 중 적색경질밀 재배면적은 2,940만 에이커, 적색연질밀은 996만 에이커, 백밀은 338만 에이커이다. 봄밀 재배면적은 1,230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봄밀 중 적색경질밀 재배면적은 1,170만 에이커이다. 듀럼밀 재배면적은 154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28% 감소했다.

□ 주간 농업현황(6/24~6/30)

남서부에서 대평원 중부 및 남부에 이르는 지역의 낮최고기온은 화씨 100도를 넘어섰으며, 남서부의 가뭄은 심화되었다(주간 누적강수량 0.1인치 미만).

옥수수: 6월 30일 기준 출사율(silking)은 3%로 전년 동기대비 19%p 느리고 5년 평균대비 6%p 느린 수준이다. 아이오와 주는 기후가 온난건조해져 생육발달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파종이 늦었기 때문에 여전히 평년에 비해 속도가 늦은 수준이다. 옥수수의 좋음/아주좋은 등급은 67%로 전주대비 2%p 증가하고 전년 동기대비 19%p 낮은 수준이었다.

대두: 6월 30일 기준 파종율은 96%로 전년 동기대비 4%p 느리고 5년 평균 대비 2%p 느린 수준이다. 인디애나 주는 금주에 파종이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인디애나 주 남쪽, 그리고 윤작을 하는 농지에서 2기작 대두의 파종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6월 30일 기준 발아율은 91%로 전년 동기대비 8%p 느리고 5년 평균대비 3%p 느린 수준이다. 좋음/아주좋은 등급은 67%로 전주대비 2%p 증가하고 전년 동기대비 22%p 높다.

겨울밀: 6월 30일 기준 수확율은 43%로 전년 동기대비 30%p 느리나 5년 평균대비 9%p 느린 수준이다. 캔자스 주는 폭풍으로 인해 수분이 공급되었으나 수확속도가 둔화되었다. 텍사스 겨울밀의 약 3/4가 수확되었으며 생산농가들은 가을파종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6월 30일 기준 좋음/아주좋은 등급은 34%로 전주대비 2%p 증가했다. 전년 동기대비 22%p 낮은 수준

이다.

봄밀: 6월 30일 기준 발아율은 93%로 전년 동기대비 7%p 느리고 5년 평균 대비 6%p 느린 수준이다. 출수단계에 진입한 봄밀의 비율은 18%로 전년 동기대비 51%p 느리고 5년 평균대비 14%p 느린 수준이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8%로 전주대비 2%p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3%p 낮은 수준이다.

쌀: 6월 30일 기준 출수율은 7%로 전년 동기대비 12%p 느리고 5년 평균 대비 3%p 느린 수준이다. 텍사스 주는 기후가 뜨거운데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작황이 나빠졌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66%로 전주대비 2%p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6%p 낮은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6/23~6/29)

- 유럽: 열파로 인한 작황우려가 있던 남동부에 비가 내려 피해가 완화되었다. 북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저지대)은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기온이 평년 이하로 하락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비가 내려 작황이 좋아졌다. 봄에 과도하게 비가 많이 내렸던 이탈리아 북부에는 금주에 또 국지적 호우(25-75mm)가 내려 토양침수문제가 재개되었다. 한랭전선이 동부유럽 상공에 정체에 있으면서 지난주 열파피해가 있었던 폴란드에서부터 루마니아 중부 및 불가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호우(25-100mm)를 내려 등숙단계의 겨울밀 및 봄에 파종한 작물의 작황이 좋아졌다. 작물이 기온에 민감한 생식성장단계에 진입한 상황인 중부유럽은 서늘해져(기온 평년대비 최저 4℃ 낮음) 열파피해의 위험이 최소화되었다. 한편 스페인은 계절적으로 온난건조한 기후가 재개되어 지난주에 중단되었던 겨울밀 수확작업이 재개되었다.
- 구소련(서부): 열파(35-38℃)로 인해 남부지역(우크라이나 남동부, 러시아 남구)의 생육성장 및 생식성장단계의 작물이 작황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등숙말기 및 성숙기에 진입한 겨울밀은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부 및 북부에는 국지적 호우가 내렸다. 이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뇌우(3-40mm)가 내려 지역별로 작황의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부터 벨라루스 및 러시아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는 비(10-90mm)가 내려 토양수분이 증가했다.
- 동아시아: 화북평원지역은 건조기후가 지속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중국 북동부는 금주에 비가 내려 작황이 좋아졌다. 중국 북동부는 5월 1일 이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주간 총강수량이 50mm를 초과하여 흑룡강성은 평년은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지린성 또한 5월 27일 이후 최초로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강수량 부족문제가 지속되는 랴오닝성에서는 금주에 내린 비가 건조함을 완화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옥수수, 쌀, 대두의 작황이 좋아졌다. 강수량이 평년수준에 못 미쳤던 양쯔강유역에도 금주에 50-200mm의 비가 내려 계절 총 강수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쌀에 수분공급량이 증가했다. 이와 같이 중국 북동부 및 남부에 비가 내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화북평원지역은 건조기후가 지속되었다. 이 지역은 5월 27일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주간기온이 평년대비 1~2℃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수수와 면화의 수분필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 호주: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려 겨울밀에 수분이 공급되었다. 밀벨트 서부에 비(5-20mm)가 내

려 겨울밀의 입모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나 Western Australia 동쪽지역은 건조기후로 인해 표토층 수분이 감소하여 생식성장단계의 겨울밀에게 불리했다. 밀벨트 동부(South Australia, Victoria, New South Wales, Queensland)에 소나기(5-25mm)가 내려 겨울밀에 수분이 공급되었으며 주중 기후가 온난해지고 화창해져 생육발달이 잘 되었다. 밀벨트의 기온은 평년수준이다.

- 아르헨티나: 기후가 온난건조하여 겨울밀 파종과 옥수수 수확이 잘 진행되었다. 북동부 등 주산지에는 사실상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남부 및 북서부지역(La Pampa 및 Buenos Aires 중부에서 Salta에 이르는 지역) 주간평균기온은 평년대비 1~2℃ 높은 수준이었다. 낮 최고기온은 Buenos Aires 중부에서 섭씨 10도대 후반, 북부지역에서 섭씨 30도대 초반이었다. 북동부지역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수준이거나 그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었고 낮 최고기온은 섭씨 20도대 초중반이었다. Buenos Aires 중부에서는 주초에 수일 동안 기온이 -5℃ 미만으로 하락했었다.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의하면 6월 27일 기준 옥수수 수확율은 88%로 전년 동기의 80%보다 높은 수준이다. 겨울밀의 파종율은 54%로 전년 동기대비 7%p 앞선 수준이다.
- 브라질: 남부지역에 2주 연속으로 호우가 지속적으로 내려 옥수수와 밀이 계절적이지 않게 수분율이 높다. 이 지역은 6월 동안 평년보다 비가 많이 왔으며, 이로 인해 겨울밀 늦파종 및 병충해 관리작업 등이 진행되기 어려웠고 저지대는 침수되었다.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부터 Mato Grosso 남부에 이르는 지역은 강수량이 25mm를 초과했으며, Parana 서부 및 Mato Grosso do Sul 남부의 강수량은 100mm 이상이었다. 한편 중부 및 북동부 내륙 지역(Mato Grosso 동부에서 동쪽으로 Tocantins에 이르는 지역)은 기온이 평년대비 최대 4℃ 높았고 건조하여 2기작 옥수수의 생육발달이 가속화되었다.
- 캐나다 평원: 전 지역에서 파종이 완료되었고, 발아 및 생육발달 단계의 봄밀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계절적이지 않게 온난하여 봄밀의 생육발달이 잘 이루어졌다. Alberta 남부 및 Manitoba의 홍하강 유역(Red River Valley)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대 초반이었고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대비 1~2℃ 높은 수준이었다. 금주 Manitoba의 강수량(최대 100mm)은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었으나, 서부지역은 지난주 비가 많이 왔으나 금주에는 건조해져 작황에 도움이 되었다.